

## 제23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회 회의록

1. 일 시 : 2010. 7. 2(금), 16:00 ~ 19:30

2. 장 소 : 율곡관 제1회의실(율곡관 204호)

3. 참 석 : 총 13명 중 10명 참석

- 참석 평의원 : 박영무 의장, 주동표 부의장, 조중열, 이재호, 박철균, 김용호, 임원형, 이해진, 김관균, 임재수 평의원(이상 10명)
- 불참 평의원 : 오동석, 박윤규, 박상호 평의원(이상 3명)


4. 회의안건

- 안건1. 펀드 관련 감독 관청 감사 의뢰 기관 결정
- 안건2. 대학 본부의 약학대학 설립 관련 재정 보고 및 관련 예산 계획 논의
- 안건3. 대학 본부의 종합관, 병원 웰빙센터, 임상수기센터 건설사 계약 과정을 포함 건축 진행 보고 및 관련 예산 청취 논의
- 안건4. 학칙 개정(안) 심의

5. 개회선언

의장 박영무 : 재적평의원 13명 중 10명의 평의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회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안건은 첫째, 표지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22차 회의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지난 2주 동안에 학교 본부 측에서 새로운 제안이 없으므로, 감사기관을 선정하는 것과 둘째, 약학대학 관련 재정보고입니다. 본부 측에서 약학대학 설립계획, 진행사항 및 재정계획 관련 자료는 제출하기 어려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셋째, 대학 본부 종합관, 병원 웰빙 센터 등 관련 자료 제출하기 어렵다는 관련 공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넷째 학칙개정안이 있습니다. 오늘 실질적으로 토의 가능한 안건은 첫 번째와 마지막 학칙개정안입니다. 먼저 펀드 관련 감사의뢰기관 결정에 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제22차 회의에서 추천감사기관으로 감사원, 총리감사실, 교과부 감사관실이 논의되었습니다. 학교에 대한 감독관청은 1차적으로 교과부이기 때문에, 법과대 교수님들을

< 간서명 란 >



포함한 여러 교수님들과 상의한 결과 교과부에 의뢰하고 감사청구 내용은 평의회에서 결의한 대로 펀드 내용에 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을 주시지요.

평의원 이재호 : 그 전에 우선 학교와 있었던 일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영무 : 뒤에 서류가 첨부이 안 되어 있나요?

평의원 이재호 : 우리가 보낸 공문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신 총장직무대행으로 하고 참조 기획처장으로 해서 제목 '펀드 투자 및 회계 부정에 대한 외부감사 의뢰 결정 통보' 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이하 내용을 읽다)

펀드 투자 및 회계 부정에 대한 외부감사 의뢰 결정 통보 (평의회-34호, 2010.6.22)
2. 지난 2010년 6월 18일 대학평의회가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펀드투자 및 분식회계 내부감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 2010년 6월 18일자 펀드관련공동 감사(안) 검토 요청 회신에 제시한 대학 본부의 내부감사(안)은 엄정한 감사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 결여되어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대학평의회는 펀드투자 및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외부 감사를 의뢰하기로 하다. 다. 적절한 외부 감사 기관의 선정과 절차는 2주 후(7월 2일)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다. 라. 위와 같은 결정사항을 대학본부에 통보하기로 하다. 단, 대학본부가, 2010년 6월 14일자 대학평의회 의장 공문(평의회-30호)에서 제시된 펀드 관련 공동감사(안) 자체 혹은 이에 준하는 수준의 감사(안)을 제시한다면 7월 2일 회의에서 외부감사의뢰에 관해 재론할 수 있다. 마.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할 수 있다.
3. 대학평의회는 효율적인 감사의 진행을 위한 요건이 갖춰져 우리 대학 내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외부에 의뢰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

이렇게 공문을 6월 22일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공문형태로 보내기 전에 이 내용을 기획처장께는 그 전 주말에 전화로 내용 설명을 하고 다시 메일로 보내드리고 그 다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전에 기획처장과 만났습니다. 그 시점은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총장직무대행과 처장들이 회의를 하기 전이었기에 회의에서 이 내용을 논의하겠다 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 간서명 란 >



니다. 그 때 전망은 밝지 않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처장이 제주도에서 열리는 전국기획처장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이 평의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그렇다면 공문형태로 답을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그래서 실제 답이 온 것이 12쪽에 있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이하 내용을 읽다)

<p>펀드 투자 및 회계 부정에 대한 외부감사 의뢰 결정 통보 관련 회신 (기획팀-809, 2010.06.28)</p>
<p>가. 대학평의회에서 제안한 「펀드 관련 공동 감사(안)」에 대하여 학교에서는 자체 감사(안)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p> <p>나. 대학평의회에서 펀드 투자 관련한 의혹으로 외부감사를 의뢰한다면 우리학교가 입을 평판도, 이미지 등의 손상은 너무나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p> <p>다. 이에 학교에서는 기 제안한(기획팀-721호, 2010.06.18) 펀드 관련 자체감사(안)이 대학평의회에서 요구하는 감사의 엄정성, 실효성, 전문성 모두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끝.</p>

결론적으로 대학본부에서는 이 전에 제안했던 안을 그대로 다시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새로 발전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총무처에다 우리가 요청한 것이 있나요?

평의원 이재호 :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입니다.

평의원 이해진 : 그래서 총무처장이 있는 거군요.

의장 박영무 : 이재호 평의원 보고를 들었습니다. 감사 의뢰 기관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평의원 김용호 : 학교 측에서는 그동안 펀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평의회에서 보낸 공문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답변도 주지 않고, 답변을 주지만 그에 대한 평의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는 위규, 사립학교법을 위반하며, 교수회의 자료발표에 의하면 교비나 적립금을 펀드에 투자해서 아무런 사과나 대처도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이신 평의원분들은 그것을 학교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외부감사를 요청하는 결의까지 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학교의 행동을 보면 외부 감사를 해서, 학교의 문제점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나 지난 번 평의회에서 내부 감사(안)을 학교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부 감사를 해야 한다는 평의원들의 학교의 발전적인 펀드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서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교과부라는 기관에 의뢰한다는 의견에 저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교과부는 그동안 대학들의 관할청으로서 감시 관리를 잘 해왔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간서명 란 >

의장

그동안 그것을 해오지 못했고, 많은 한국 대학들이 적립금을 가지고 펀드를 위협하게 투자하게 두었습니다. 이런 기관에 우리 학교 감사를 의뢰하는 것에 저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만약 외부감사를 의뢰해서 학교가 감사가 이루어진다고 쳐도, 그 이후에 누구라도 책임감 있게 끝까지 문제를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결국 학생들한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내부 감사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 의장님과 평의원분들께 다시 한 번 재논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평의원 박철균 : 지금 기획처 공문에 보면 감사에 대한 내부 감사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또 자체감사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감사의 주체가 학교가 되면 자체감사에 해당되는 거죠, 감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내부인으로 구성되어 있든, 내부인+외부인으로 구성되어 있든, 외부인 만으로 되어 있든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지 외부인이 구성된 감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그게 외부감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기획처가 쓰는 공문에 의하면 두 단어가 혼동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내부 감사가 아니고 자체 감사를 하는데, 다만 그게 전문가가 투입되는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여기 쓰는 단어는 외부감사가 맞습니다.

평의원 박철균 : 사적기관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평의원 이재호 : 네.

평의원 박철균 : 사적기관에 저희가 의뢰하는 감사는 그건 자체감사죠. '나'가 지금 감독기관에 의한 감사입니까, 아니 지금 문장상으로 보면 저희가 외부기관에 의한 감사는 사적기관에 의뢰하는 저희가 주체하는 감사를 얘기하는 거죠? '나'에 쓰이는 외부감사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기획팀 진성호 : 외부감사의 주체는 교과부, 총리실, 감사원을 의미합니다.

의장 박영무 : 외부 감독관청의 감사를 의미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것을 결의를 했죠, 지난 회의에서. 지금 학생회장은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이것을 재론하자는 것이지, 우리가 결의했다는 사실 자체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평의원 박철균 : 제가 용어상 이해를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해를 하기로 하고요. 저도 사실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중차대한 사안이고, 결론에 따라서 학교에 큰 이미지상의 손상이 우려가 되고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결정이 있었습지만, 학교, 기획처 공문의 내용을 오늘 아침에 보고, 확인하기 직전에 직원들의 생각은 어디 있는가 싶어서 직원 전체한테 이

< 간서명 란 >



부분에 대해 간단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몇 분의 직원 선생님들이 대답을 해오셨는데, 물론 대답해 오신 선생님들은 대부분 학교 발전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신중하게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학교 문제는 학내에서 해결방안이 모색되었으면 좋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학생회장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학내 문제는 학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심각하게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박철균 팀장님께서 직원들께 보낸 내용이 이겁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세 번째 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외부기관의 감사 또는 유사행위를 요청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정도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느 누구한테라도 그냥 외부 기관에 요청할 건지에 대해 의견을 묻는다면 당연히 그러지 말고 우리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자가 될 것이고, 우리도 똑같은 답을 사실은 지난번에 가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런 정도의 질문이 되어 버렸고, 답은 사실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전달하면서 의견을 정확하게 물으려면 컨텍스트를 정확히 전달해야겠지요. 이러이러한 논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학교의 대응이나 논지는 이런 것이다. 이 상황에서 평의원회는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숙고할 시간을 갖도록 하자라고 결정을 했던 것이고, 안타깝게도 학교가 내린 결정은 2주 전에 회의에서 우리가 자료로 본 것하고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내용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외부감사를 요청 할 것인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외부감사 요청은 하는 것으로 이미 의결되었고, 다만 어느 기관에 어떤 절차로 감사를 의뢰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하자라고 해서 오늘 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보내서 의견을 들으셨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회의에서 주장의 근거로 말씀하시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학생회장의 의견처럼, 이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의견이 박철균 평의원 개인의 제안이다 하시면 그건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것을 다시 논의할 것이냐, 아니면 전전주 회의에서 결정했던 대로 그 컨텍스트 안에서 결정을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논의할 수 있겠죠. 지금 박철균 평의원께서 직원들의 의견을 묻고 그것을 취합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간서명 란 >



평의원 이해진 : 직원들은 어떤 직원들한테 보내셨습니까?

평의원 박철균 : 전 직원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회신은 것은 그럼?

평의원 박철균 : 소수 인원에게서 왔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소수인원이라는 게 감사를 한 번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평의원 박철균 : 감사를 받아본 사람도 있고, 직접 감사에 개입이 되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이재호 평의원께서는 감사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평의원 이재호 : 이전에 과기부 감사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방사능 동위원소 사용과 관련된 것이었고 여기 와서 감사하는데 우리가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 과기부에 가서 별도로 해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객관적으로 기업체에서 감사를, 외부감사를 받는다고 하면, 업무마비가 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신문지상에 모 회사 감사받는다 보도 되면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외부 감사의 중요도, 입는 데미지, 이런 부분도 사실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지난 번 회의 때 결정하셨다고 합시다만, 지난 번 회의에서 이순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제가 중간에 나갔습니다만, 이재호 교수님이나 다른 평의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대학교는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을 내릴 것인가 상당히 걱정스러웠습니다. 작년 평의원회 할 때도 그 문제가 불거져서 김병관 총무처장이 나와서 발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명확히 총무처장 선에서 위임전결권이 이루어져서 이러한 금액이 투자가 되고,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막아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막는 방법을 강구해라. 그래서 학교는 방법을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시다만 결과 통보는 못 받았습시다.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그런데 올해 들어서 그 건과 유사한 여러 가지 건들이 복합적으로 이순일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외부 감사에 대한 여과는 평의원회 안에서 깊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지금 중요한 것은 외부 감사를 안 하면서 감사의 엄정함 이런 것들이 보장될만한 방안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대안들을 생각해 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학교에서 정말 걱정을 한다면 학교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지요. 지금 형국은 어떤 거냐하면, 이런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공동감사 제안을 했고, 학교는 이런 정도 수준의 감사밖에 안되겠다라고 내놓은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

< 간서명 란 >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 제대로 된 감사를 받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외부감사를 받을 수밖에 없겠다고 된 것이고, 그런 실효성을 가지는 감사를 학교가 제시한다면 그것을 재론하겠다고 신호를 준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학교는 예를 들어서 한발이라도 진전이 있었다면 뭔가 시간을 갖자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어디 한 발이라도 진전이 있었습니까?

평의원 이해진 : 교수님 말씀은 결론적으로 외부감사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평의원 이재호 : 만약 이 자리에서라도 외부감사 아니고 펀드투자, 분식회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힐만한 방안이 우리 머리에서 나온다면, 그리고 학교에서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의원 이해진 : 그렇지 않다면 외부 감사를 해야 한다?

평의원 이재호 :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걸 덮어두자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평의원 이해진 : 의장님, 저도 의견들을 충분히 협의한 후에 평의원회 전체 의견이 이렇다고 만장일치로 의견을 제시하기 보다는, 평의원회 몇 분은 생각이 이렇고 몇 분의 생각은 이렇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평의원회에서 마치 외부에 학교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외부 기관에 평의원회 전체 만장일치로 의견을 내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사실 저는 그런 위험 부담을 안기 싫어요. 사실 제가 대학의 의사결정권자라고 하더라도 그런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충분히 의견을 토의한 후에, 평의원분들의 개개인의 가부를 맞춰야 할 것입니다.

의장 박영무 : 회의 진행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외부감독기관에 감사 의뢰하는 것은 이미 결정한 사항입니다.

평의원 이해진 : 평의원회 결정할 때 제가 없었습니다만, 의장님 말씀도 외부 기관에 감사 의뢰를 하는 걸로 결론을 내신 것 아닙니까?

그럼 평의원회 할 필요 없이, 그 기관이 감사를 받아줄 지는 모르겠지만, 이재호 교수님이나 의장님께서 이런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타진해볼 때 이렇더라라고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의원 주동표 : 오늘 결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어느 기관에 감사의뢰를 할 것인가 지금 그것을 의논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이야기가 다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2주전 회의에서 설명을 듣고, 생각해서 만장일치로 내린 결론이었거든요. 의사결정을 굉장히 신중히 해야 하고, 내린 결정을 가지고 다음 번 회의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건 좀 이상한 애깁니다.

< 간서명 란 >

이재호

평의원 김용호 :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학교에 미칠 파급이 크기 때문에 그 당시 학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 감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결정은 어떻게 보면 저희 평의원들이 생각하는 학교발전이나 우리 학우들을 위한 결정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결정을 번복하려면 그에 합당한 사정변경이 있어야겠지요. 어떤 사정 변경이 있었습니까?

평의원 김용호 : 그래서 재론을 하자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러니까 어떤 사정의 변경이 있었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사실상 만장일치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론할 수 있겠지요. 커다란 변경사항이 있다든지 그러면 재론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겠지요.

평의원 이해진 : 교수님,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 이치에 하나도 어긋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법적인 결정기관도 아니고 학내에 있는 심의기관이자 자문기관입니다. 설사 지난번에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우리 평의원들끼리 다시 한 번 재론할 수 있는 거죠.

평의원 이재호 : 재론 하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평의원 이해진 :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박철균 평의원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의견을 물어봤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의견들을 전달하더라, 물론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설문취지가 명확치 않으면 의도된 답변이 나올 수 있겠지요.

평의원 이재호 : 그러게요.

평의원 이해진 : 그런데 제 생각에는 박철균 평의원께서 분명히 의도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설문을 뿌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또 하나는 지난 번 회의 결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이 미칠 파급 효과가 클 것 같으니까 의견을 동료들에게 물어본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을 이전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질문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끼리 협의하는데 협의조차도 기존에 결론 낸 내용에 대해서는 재론하자는 결론을 깔아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우선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가 다 가정입니다. 박철균 평의원이 한 행동의 배경에 대해서 가정을 하셨고, 제 행동의 배경에 대한 것도 또 가정입니다. 제 행동에 대한 가정은 틀리셨습니다. 예를 들어 의장께서 이전에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나 충분한 사유 없이 변경하려고 한다면 저는 지금과 똑같은 태도를 취했을 겁니다. 이러 저러하게 결정된

< 간서명 란 >





바가 있으니 그것을 뒤집으려면 상당히 중요한 사정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평의원들이 동의를 하셔야겠지요 라고 똑같이 얘기하겠지요. 대상이 달라졌다고 해서 제 논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저는 박철균 평의원께서 이것을 어떤 대답을 들을 의도를 가지고 직원들한테 보냈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상당한 고민을 하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어보는 방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답변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거나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즉,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박철균 평의원께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나...

평의원 박철균 : 제 문제가 자주 들어가니까 저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메일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제시해야할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거듭하면서 이 사안의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제 개인이나 몇 사람의 생각보다는 직원 전체 의견을 종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견을 주실 때는 그동안 펀드 관련 메일과 평의원회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지난 번 평의원회에서 나온 얘기를 여기서 요약한 다음에 물어보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하시는 건데, 저는 이걸로 같음을 한 겁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기에 설명을 달면 달수록 오해가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질문을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 부분은 관심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굳이 그동안의 경과를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직원들이라면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메일을 보낸 겁니다. 제 질문이 잘못됐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보낸 겁니다.

평의원 이재호 : 제가 지적한 두 가지 부분은 이 내용을, 열심히 평의원회 회의록을 읽어본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박철균 팀장께서 명확히 쓰셨습니다. 요청할 것인지에 대해 최종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 말뜻은 외부 기관에 요청할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 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결론을 냈지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재론하자는 것이지, 결론이 안 난 것이 아닙니다. 직원들이 회의록을 본다고 하더라도 학교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답변을 보낸 것이 이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점을 감안할 때 직원들의 의견으로 보기에 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박철

< 간서명 란 >

박철균

균 평의원께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시는 것이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평의원 이해진 : 대학에 지난 번 결정사항을 보낸 공문을 제가 볼 수 있을까요?

평의원 이재호 : 여기 있습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않으셔야 할 부분은 외부 감사를 보내야 한다고 제가 이야기할 때 그것의 근거는 지난 번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어떤 실효성이 있는 대안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환영할 수 있습니다.

평의원 김용호 : 저도 회의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여 있는 대학평의원회는 학교를 위한 것이고, 학교를 위한 것이라면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하고, 여기에 재론할 근거가 없다면 재론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여쭙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를 위하고 학생들을 위한 곳인데 만약에 외부 기관에 맡겨서 이 일이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그 때 받을 학교, 학생들 타격에 대해서 그 누가 이런 결정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상당히 힘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심도 있게 재론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의원 임원형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입을 피해, 타격 책임질 수 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대학본부는 과연 이런 행위, 비리라든지 분식회계라든지, 펀드투자 불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런 생각을 했느냐 안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적절한 방법을 쓰지 않았을 때 그 책임 또한 우리가 과연 질 수 있을까 없을 까 하고 똑같은 질문인 거 같거든요.

평의원 김용호 : 해결하지 말자는 말입니까?

평의원 임원형 : 피해주자고 회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해결을 해야 하는데 어떤 게 학생들을 위한 거고 어떤 게 학교를 위한 건지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 상대방의 방법을 가지고 그건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을 하실 거면 명확히 하시고, 아니면 당신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그 반대도 그런 식으로 결론이 안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평의원 조중열 : 저는 교과부 감사를 입시 때문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5년 전에 입시부정으로 아주대학교가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관련자 누군가가 제보를 했습니다. 아주대학교 입시 특례입학에서 약간

< 간서명 란 >

이재호

부정이 있다, 아는 사람을 받아들인다고 교과부에 제보를 해서 교과부에서 감사를 나왔는데, 아마 제보를 하신 분도 고민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는 게 학교에 득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그런데 아마 그때도 다른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자 그랬겠지요. 그런데 그때 교과부 감사를 받아서 아주대학교가 크게 타격을 받은 것 있습니까? 아, 입시를 좀 더 공정하게 해야 되겠구나 뭐 대충 그런 겁니다. 그리고 관련자들 중에서 잘못된 사람 있으면 처벌을 받았겠지요. 그런데 그때 입시 관련한 것과 펀드 총액은 200억이지만 손실은 50억에서 왔다 갔다 하지요, 이전 이미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과부 쪽에서도 당연히 신문에 나온 내용만을 근거로 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교과부에 들고 간다고 해서 아이쿠 이거 학교 망하겠구나! 지금은 이런 위험성은 많이 가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혹이 제기 되었을 때 학교에서 아, 그럼 깨놓고 한 번 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나오면 다 지나갔을 이야기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감추고 학교 돈을 마치 일부 사람들이 개인 용돈 비슷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잘못됐다, 그런데 학교 돈을 내 돈처럼 함부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고치기 위해서 감사를 하자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학교가 심한 타격을 입는 그런 일은 저는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이전에 학교가 패널티를 받긴 받았죠, 그 패널티가 아마 신입생 정원을 일부 제한을 받았습니까?

간사 김근태 : 교과부로부터 입학정원 감축 및 재정지원 감액을 공문으로 통보받은 적이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렇죠, 일부 삭감된 그것이 학교가 받은 패널티였습니다. 그 패널티가 학교가 망할 정도의 패널티냐, 사실은 그 점에 대해서는 패널티는 패널티고 데미지는 데미지이겠지만, 그것이 정말 학교에 사활적인 것이냐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간사 김근태 : 입학정원 감축 및 재정지원 감액을 통보 받았으나 소송을 통해 "이유 없음이 명백함" 을 이유로 승소하여 입학정원 감축 및 재정지원 감액이 취소되었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제가 평의회에서 학교 공문을 보자고 했던 이유는 평의회 전체 만장일치로 이런 얘기가 됐는가 보려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입시 부정에 대한 감사와 회계 부정에 대한 회계감사는 좀 틀릴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순일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을 보니까 대학의 한 기능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재단까지 포함된 전체 감사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파급효과는 클 거라는 생각을 제가 했고, 이재호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

< 간서명 란 >

이재호

해서 상당히 합리적이고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만큼 다시 한 번 숙고하자, 지난 번 한번 결정하고, 이번에는 어떤 기관에 의뢰할 지를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하는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장일치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감사요청을 하신다고 하면,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 입장으로서 평의원 몇 분의 성함으로 하시던지 아니면 다른 집단의 감사요청사항으로 가던지 그렇게 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고 이유는 의장님 포함해서 교수님들께서는 이미 학교에서 이렇게 나온 관계로 우리는 갈 때 까지 가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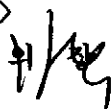
평의원 임재수 : 의장님, 학교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지금 학생회장 김용호 평의원께서 학교 또는 학생들의 피해를 우려해서 이번 안전에 대해 심각하고 심도 있게 재논의 하자고 의장님께 발의 요청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충분한 논의하자 말씀하시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감사를 여러 차례 받아왔지만 실제로 내부감사 즉 자체감사가 외부감사보다 훨씬 개선권고 사항을 많이 줍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안전의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고 업무적, 제도적으로 완전 보완이 필요한 것이 결론일거라 평의원님께서도 생각하실 겁니다. 학내문제는 현 언론기관 행태를 보면 아주 좋아하는 기사거리로 학교이미지에 매우 큰 타격을 줄 거라 생각하고, 반면 외부감사 속빈강정인 개선권고 감사결과는 다시 언론기관 도마 위에서 일파만파 확대돼 학교 이미지는 영만 진창이 되겠지요. 이해진 평의원께서는 동문대표 평의원으로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학내 자체감사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지적하고, 개선권고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 감독을 받기 때문에 재발방지 및 개선에는 자체감사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전에 대해서는 전 대대학평의원에서 계속 이어지는 안전으로 일반직원들도 모두 알고 있어 박철균 평의원께 이번 안전문제로 직원들 의견을 물어본 것도 심사숙고해서 재논의하고 결정해야 될 사안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전 평의원회의에서 외부감사의뢰로 결정됐다 하더라도 학내문제이고 직원들, 동문들, 학생회가 평의원이기 때문에 재논의 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평의원들께서도 충분한 의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영무 : 충분히 의견 개진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평의원회 존재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발언은 조심하여야 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전제를 깔고 그 다음에 논의를 해야겠지요.

평의원 주동표 : 이해진 평의원님, 만장일치 관련해서 발언을 하신 것 같은

< 간서명 란 >



데, 대학에 보낸 기록에는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지난 번 평의회 회의 때 의장님께서 만장일치 말씀을 하셨고 없는 얘기를 제가 꾸며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녹음된 기록에 있을 겁니다.

평의원 이해진 : 제가 그래서 아까 기획팀장한테 참석대상 적지 말고 참석자를 적자고 했는데, 그걸 명확히 해주셔야 합니다. 참석자는 누가 있다가 빠져 나갔다든지, 만장일치는 그럼 여기 없던 사람들까지 다 만장일치로 갈 수 있습니다.

평의원 주동표 : 그건 당연하다고 얘기할 거고, 만장일치 문제는 없는 일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의원 이해진 : 그런 오해는 하지 않습니다.

평의원 주동표 : 듣기에 따라서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난 번 회의에서 참석하신 평의원 전원이 발표를 들으시고 고민을 하시고 전원이 찬성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그때 자리에 안 계셨던 분이 다음 번 회의에서 오셔서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시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결정 자체를 재론하자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평의원 이해진 : 가부 투표를 거수 결정했나요?

평의원 이재호 :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청있으십니까, 예,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표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 의장이 반대 있으면 표결하고 없으면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으로 하겠습니까라고 했고, 거기에 대한 반대는 없었습니다. 그럼 만장일치로 외부에 감사청구하는 안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평의원 주동표 : 오늘 그 결정에 대해서 재고할 수 있는 여지에 관해서 분명히 지난 번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상당한 상황의 변화가 있어야만, 있기를 바라면서 그때 그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재론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상황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른 말씀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혹시 지난 회의의 결론을 바꾸기를 희망하는 발언이라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하는 겁니다.

평의원 이해진 : 제가 결론적으로 상황 파악이 돼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감사 의뢰기관을 결정하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것 같고 감독기관 감사를 결정하는 것은, 어느 기관 어느 기관이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도 어느 분이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박영무 : 지난 회의에서 감사원, 교과부, 국무총리실 중 감사 의뢰 기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시 할 것을 의장이 위임받았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1차적으로 교과부에 의뢰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미진하면 그 다음에는 감사원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교과부 자체에 잘못이 있으면 감사원에서 재 감사를 요청할 수도 있겠지요.

평의원 이해진 : 지난 번 말씀하셨을 때 감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의장 박영무 : 펀드 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감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학생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지요. 그 조사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

평의원 김용호 : 그게 왜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건지요?

의장 박영무 : 보고서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한다는 뉘앙스를 주는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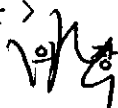
평의원 김용호 : 감사를 받기 위한 자료입니다. 검증은 받지 않은 자료고요. 교수님들이 비록 뛰어나게 열심히 하셔서 만든 자료지만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는, 왜냐하면 정말 큰 문제이니깐요. 그게 왜 의아해하시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장 박영무 : 오늘은 의견이 좀 다르군요.

평의원 김용호 : 제가 외부감사를 가자고 말씀 드린 적은 없습니다. 제가 감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은 기억이 나지만요, 외부 감사에 대해서 저도 반대는 하지 않았지만, 저도 2주 동안 심사숙고하고 깊이 생각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평의원 이재호 : 회의록을 보면, 만장일치로 결정은 되었으나 학생회장이 마지막에 가서 외부감사보다는 내부감사가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고 다시 한 번 재론을 하자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이해가 가구요, 문제는 뭐냐 하면 평의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재론을 하고자 한다면 그만한 정도의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꼭 이 건이 아니라 다른 어떤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론하자고 이야기 할 때는 그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되겠지요. 다만 김용호 평의원께서 얘기하신 것은 학교의 데미지가 크지 않겠느냐 사실 이거 하나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데미지가 클지는 서로 생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측면이 많습니다. 아까 조중열 평의원도 말씀하셨고, 저는 조중열 평의원보다는 좀 데미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학교의 사활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사안들을 덮고 가는 것, 제대로 풀어내지 못할 때 받는 데미지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논리가 되는 게 머냐고 하면 만약 그렇다면, 그게 그렇게 걱정이 된다고 하면 내부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엄정하고 정확한 결과를 얻을만한 그런 형태를 제안하고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설득하고 노력을 해야겠지요.

< 간서명 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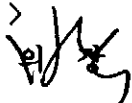


평의원 김용호 :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기를 원하는 학생대표입니다. 큰 중차대한 변화가 없다고 해서 다시 한 번 재론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하는 거지요. 그걸 제시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니까, 이런 데미지가 입을 것이 눈에 보이니까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고 결과적으로 들 중 하나겠지요. 데미지 입는 것에 대한 걱정이 커서 외부감사는 안되고 내부에서 학교에서 제안하는 그런 정도, 그럼 그것을 받자는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감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시던지 이런 부분까지 가야되겠죠.

평의원 이해진 : 이 문제의 핵심은 학교가 이러이러한 내용이 재발되지도 않고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이번에 확실하게 못 박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개선안을 만드는데 학교 측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끝까지 가야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학교 측에서 성의 있는 답변과 서로 안을 협의할 정도가 됐으면 이런 평의원들의 말씀을 안 들어도 되겠죠. 그 다음 방법이 뭐냐고 했을 때 저도 답변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또 하나는 이재호 평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논리적으로 전혀 어긋남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여기에 평의원으로서 깊숙한 논의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외부에 동문 대표로 평의원회에 와 있습니다만 여기 학교 평의원회 왔을 때 자료 보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은 이것을 굉장히 이사회 움직임라든지 총장 움직임 이라든지 나머지 교수님들의 움직임을 낱낱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날 와서 그때 와서 판단하면 감정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 분들이 사실은 이런 깊숙한 내용을 논의할만한 평의원 자격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조차도. 한 번 얘기했다가 집에 가서 살펴보고 이러면 이게 무슨 문제구나, 또 저도 몇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물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짜임새 있는 질문은 못했을지언정, 그 분들도 학교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안은 나보다 많이 알고 있을 거다 가 사람들에게 전화를 드려서 의견을 여쭙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 같은 이해진 평의원이라면 그런 내용으로 평의원에 참석하고 있어요. 또 여기 계신 내부 구성원이 아닌 한 발짝 뒤에 물러나 있는 후원자로서의 동문 자격으로 쳐다보는 게 애정이 더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평의원 자격이 없다는 것은 쪽 발표를 들은 내용도 사실 저는 이해가 잘 안가요. 저는 오자마자 낱낱이 읽어본 이유가 빨리 파악을 하려는 거거든요. 결론이 뚝 나오고 나서 아, 이거 너무 큰 문제다,

< 간서명 란 >



교수님들 다시 의논 좀 하십시다, 그런데 이전 지난 번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고 재론할 수 없다고 하시면, 제가 답답해요. 제가 몇 번 평의회에서 시간 버리고 와서 제가 이 골치 아픈 거 매달려 있어야 하는 건가 생각을 하거든요. 평의회 자격이 없는 사람을 평원으로 같이 끌고 가셔야 하는 의장님께서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이게 지난 번 작년 평의원일때도 학교의 발전계획과 이런 것을 봐야하는데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면 참 좋겠어요. 그럼 저요, 1박 2일 워크숍이라도 참석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보면 좀 짜증이 나는 자료예요. 대학 측이 잘못 됐든 재단 측이 잘못 됐든. 알아서 해결 좀 하시지, 왜 평의회 안전까지 가지고 와서 외부 기관에 감사할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평의원 임재수 : 의장님, 5분만 쉬었다 하시지요.

의장 박영무 : 충분히 시간을 드리지요.

(휴정)

의장 박영무 : 회의를 속개하시죠.

평의원 박철균 : 평의회 속기록 기록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속기록을 작성하다보면 부득이하게 회의 중간에 이석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번 회의 때 중요한 의사결정 때문에 사무실에 다녀왔었는데 그 때 표결 등등이 아마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속기록을 놓고 보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여를 했던 걸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의사결정이 진행될 때 이석 상황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겨주는 게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모든 회의에서 그렇게 기록 관리를 하자면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특히 민감한 부분이 검토될 때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기록을 남겨주고, 중요한 의사결정이 결정될 때는 거기 이석된 사람이 있다면 명시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영무 :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의장님, 평의원 중에서 외부 평의원 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계속 안 나오고 계세요. 혹시 그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의장 박영무 : 그 이유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저는 심적으로 자신들이 평의회에 와서 별로 할 역할과 참석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지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우리 평의회에 대해서 너무 학교 대학의 감독기관 내지는 감사기관 내지는 물론 잘못된 부분 바로잡자는 내용이지만 폭 넓게 발전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그런

< 간서명 란 >





게 있으면 자신들도 외부 평의원으로서는 참석해서 발언하고 자기 역할이 뭐다 라는 것을 인지하실 텐데 너무 논의대상이 학교 안에 특히 작년부터 회계에 대한 내용, 거의 평의원회하면 회계에 대한 내용이 4/5가 아니라 90%였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저 자신조차 평의원 자격 없지 않나 라고 말씀드렸듯이 그 분들이 그런 생각하신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은 의장님께서 그 분들의 생각과 그런 것을 파악하시가지고 동참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마치 우리가 정족수가 13명인가요? 13명 중에서 7~8명 되면 우린 정족수를 채웠으니까 진행해나간다 이런 부분하고는 고민을 좀 의장님께서 해보셔야 하지 않나 합니다.

의장 박영무 :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발전을 논하기 이전에 대학 운영에 거짓과 부정이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정확한 말씀입니다. 평의원회의 존재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다른 여러 가지 역할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하나 평의원회가 예를 들어서 의장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만 집착해서 매달려서는 다른 내용이 묻히고, 평의원회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는 말씀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저도 작년 회의록을 다 읽어봤습니다. 올해 이거 아니고도 사실 여러 가지 건이 많았지만, 이 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았는데, 어째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가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처음 문제제기 됐을 때 그때 털고 갔어야 했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을 밝혀내고 그럼 앞으로 이 부분은 이렇게 해결하자 이렇게 됐어야 했는데,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학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아주 제한하고 감추려고 하고 있구나, 왜 그래야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의 실체는 무엇인가, 계속 의문점이 남아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평의원회는 무력감을 느낀 것으로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건이 빠지는 일이니까 덮어두고 다른 일을 할 것인가, 대학 당국이 대학본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비밀로 하고 감추면서 문제를 점점 더 확산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제대로 했으면 훨씬 값을 덜 치렀을 텐데, 지금이라도 제대로 처리하면 방치하는 것보다 그나마 낫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평의원 이해진 : 작년에 평의원회 할 때도 평의원 균형성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어요. 대학에 굉장히 여러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꼭 평의원회가 아니더라도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을 거고, 여러 처장님들도 있으실 거고,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학내 그런 문제들이 있어

< 간서명 란 >

이재호

요. 그리고 가장 평의회에서 작년에도 안타까웠던 점이 평의회 기능에 대한 정의를 서로 모르고 앉아있었던거든요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학교측 재단측 답변은 거 작년에도 거의 없습니다. 회의록 다 읽어보셨다고 하는데, 평의회 쪽에서 재단 이사장 쪽으로 공문을 보내요, 절대로 이사장님은 평의회 앞으로 공문 안 보내요, 총장한테 보내지. 그런데 작년에 그것을 총무처장이 재단 이사장이 총장한테 평의회 이렇게 생각한다는 공문을 여기서 그대로 가감 없이 가져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총무처에다, 기획처였나요, 아니 당신들은 이거를 총장과 이사장의 공문사항을 평의회에다 오픈해도 되는 거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평의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평의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을 감사 기능이든, 저는 회의에 대해서는 자문 혹은 심의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고 이것은 평의원님들과 의장님이 스스로 정해야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박영무 : 평의회 역할에 대해서는 정관에 정해져 있지요, 얘기했듯이 자문사항이 있고 의결사항이 있고, 자문사항으로는 예산, 회계가 있습니다. 편의상 비교하면 교무회의는 행정부의 국무회의에 해당하고, 평의회는 국회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의회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학내에서 평의회 기능과 역할이 충분히 이해되고 있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11페이지에 사립학교법 제26조 2항 대학평의회 및 정관 제35조가 있는데, 심의와 자문사항 있잖습니까, 심의사항이 1,2,5,7 자문사항이 3,4,6이 있는데 자문사항과 심의사항을 구분해 놓은 것은 뭔가 차이가 있겠죠. 자문사항은 우리의 의견은 이렇고 이것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게 자문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심의사항은 그야말로 심도 깊게 저희 쪽 의견을 좀 더 강하게 어필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펀드투자 회계부정, 이 부분은 자문회의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제대로 된 자문을 위해서는 이런 자료가 있어야 한다, 자료 제출 요청이 있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자문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문을 받아야할 대상이 대단히 불성실하게 자문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평의원 이해진 : 이 사항과 관계없이 자문이라는 부분은 자문 받는 사람이 자문 안 받아도 상관없는 거지요.

평의원 이재호 : 그렇지 않습니다.

< 간서명 란 >

이재호

의장 박영무 :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평의원회 회의록이 첨부가 되어야만 교과부에서 결산자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박영무 : 평의원회는 대학 운영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하게 만드는 최소한의 제도입니다. 대학본부가 투명하고 정직한 운영을 위반해서 문제가 커진 것 입니다.

평의원 이해진 : 작년 평의원회 회의록에 펀드에 대한 내용, 그 내용이 단락 지어진 게 위원회 구성해서 집행해라 라고 일단락 지어졌죠.

평의원 이재호 : 일단락이 지어진 것은 모르겠으나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 일단락 지어진 것 어려웠겠죠. 왜냐하면 자문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결산서가 제출되는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다만 자금운용위원회 설치라든지 그런 게 제안되었던 거고, 실제 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비록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위원회 회의록은 나왔으나 2009년 결산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잘못된 부분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모든 것이 클리어하게 됐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정도의 내부감사를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작년과 비교해보면 성도회계법인도 어느 정도 이 문제에 말하자면 눈을 감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법인의 감사도 이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파악을 한 흔적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보면 제대로 엄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부감사를 할 때 회계감사 부분에 있어서는 제3의 전문가가 해야 한다, 이게 결국 평의원회의 요구였던 거였고, 학교는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평의원 김용호 : 저도 이재호 평의원님의 의견에 많은 부분 동의합니다. 저도 여태까지 학교가 너무나 신뢰를 잃어왔고 불신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도 지난 평의원회가 끝난 후에 내부감사안과 제철학기 등록금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획처를 찾아간 자리에서 처장으로서 할 수 없는 말까지 들으면서 그 분 앞에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저도 외부 감사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제가 다시 한 번 여기 와서 재론을 하자고 말씀 드리는 것은 아까와 똑같습니다.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고 그 이후에 학생들에게 돌아갈 불이익, 이런 것을 생각해보자. 지금까지 이재호 평의원 그리고 의장님, 많은 처장들과 이야기하고 공문을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성의를 학교가 보이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한 번 트라이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트라이하고 다시 한 번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 간서명 란 >



평의원 이재호 : 요구를 하는 것은 상대방이 듣기를 바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듣게 만들 것인지.

평의원 김용호 :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것에 대해 책임을 갖고 있는 이사장, 총장 이런 분들께 우리 평의원이 가서 직접적으로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내부에서 오신 분이냐 아니면 학교에 계시지 않은 분들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가서, 저는 기획처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트라이를 해서 요구를 해서 내부 감사를 우리 평의원회에서 만든 안을 꼭 관철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저는 특권에 대해서 평의원회 명의로 의장님 명의로 감사를 하자는 공문 보내신 거 그거 이외에 우리 김용호 평의원이 얘기한대로 학교 기획처나 총무처나 총장님 상대로 의견 개진한 적이 있으신가요?

의장 박영무 : 이재호 평의원이 말씀해주시지요.

평의원 이재호 : 제가 관련 처장 혹은 처장들을 토탈 4번을 만났습니다. 평의원회 의장이 내놓은 최종안이 여기까지는 가능하다는 것을 드렸으나 학교 측에서 보낸 답은 사실은 논의하던 수준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그건 아마도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하자는 것을 형식에 담지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온 것은 작년과 동일하게 하자는 겁니다.

평의원 이해진 : 평의원회 한 분으로 말씀드리는 것과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께서 총장직무대행을 만나 뵙고 사태의 중요성을 전달하시고 풀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교수님들께서 처장들 만나서 말씀 드리는 것도 배경설명이 되겠으나 평의원회에 의장, 부의장께서 제시기 때문에 한 번 만나서 논의해보는 게 어떨까요.

평의원 임원형 :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요, 공문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힘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우리가 다같이 가서 말을 한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공문으로 보냈을 때 안됐던 것을 의장님께서 말로 해서 그게 번복이 되면 저는 그게 더 학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이해진 : 의사결정 하는 게 공문과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와 우리가 공문을 내보내고 우리 공문대로 관철시키는 게 목적인다고 한다면 공문 보내는 것 이외에 그 다음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서로 만나보고 그거에 대한 의견과 사태의 심각을 부각시켜서 같이 말씀드리고 논의를 해야 되는 거지, 공문으로 전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평의원 임원형 : 저도 공문으로 왔다갔다 거리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기획처장님이라거나 총무처장님이 오셔서 대화를 하려고 그러고, 평

< 간서명 란 >



위원회 중에서 한 명이 가서 루트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징적으로 의장님께서 가서 그동안 했던 것을 모두 뒤엎을 만큼의 파워를 갖는 다거나 그런 의사결정이 과연 평의위원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저는 의견을 좁혀가지고 사태를 해결해나가는 관점을 찾자는 거지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데미지가 나는 것은 마찬가지로 일거예요 중간에 빨리 합의점을 찾아서 평의위원회에서도 이 정도의 납득할만하게 학교 측에서 조치를 해달라는 그 안을 끌어내야 할 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공문을 보낸 이유도 원만하게 이런 것을 해결하자고 보낸 거거든요 그쪽에서 일단 공문으로 노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대로 저지를 거냐 한 번 더 해보자는 거지요.

평의원 이재호 :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또다시 컨디션덜한 방식으로, 지금 이걸 외부로 감사요청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적절한 루트를 결정 하되, 단, 실행에 옮기는 시점을 역시 또 일주나 이주 후로 미루고, 그 동안 학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 감사가 되도록 적절한 제안을 하도록 해라라고 요구하면서 이게 평의위원회의 결의사항이다,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라는 신호를 다시 한 번 보내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평의원 이해진 :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해진 평의원자체가 이 내용을 명확하게 판단 못하고 있었다, 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이것을 재론하는 의견들을 교환했다. 라는 내용으로 이번 23차는 마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께서 총장대행과 이야기를 하시고 다음 주에라도 다시 한 번 말씀을 하시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감사의뢰기관을 결정을 하자, 교수님께서 감사의뢰기관이 이러이러한 게 있고 장단점들이 이런 게 있고 파급효과는 어디까지 있다 라는 것들을 다음 주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 다음 주까지도 안 된다고 하면 그 중에서 하나를 그 장단점을 파악해가며 파급 효과를 고려해가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요. 이 내용이 일주일 늦어진다고 해서.

평의원 이재호 : 파급 효과는 조사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평의원 이해진 :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파급 효과는 감사 받는 기관의 문제입니다. 감사받는 기관에 학교로서는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지금 재학생들 입장도 그렇고, 보직교수님들이 감사에 전념하는데 수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평의원 이재호 : 우려하는 데미지라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겁니까? 감사

< 간서명 란 >

의장

가 오면 수업에 차질이 있다?

평의원 이해진 : 그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 과정상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평의원 이재호 : 어떤 문제 말씀이십니까?

평의원 이해진 : 감사 받는 기간 동안에 학교에서 아무런 결정도 못 내릴 수 없을뿐더러.

평의원 이재호 : 아무런 결정을 못 내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평의원 이해진 : 거기 감사 받는 데 전념하실 것 아니에요.

평의원 이재호 : 감사에 해당하는 부서가 그렇겠지요.

평의원 이해진 : 감사에 해당하는 부서가 어디까지 미칠지 모르겠어요.

평의원 이재호 : 그럴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거야 말로 외부 감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 아닌가요.

평의원 이해진 : 글썄요. 감사라는 부분이 한 가지만 결정을 해놓고 이 해당 사항만 감사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특히 회계감사는요.

평의원 이재호 :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의원 이해진 :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이재호 평의원이 생각하시는 결과에 대한 문제보다도 과정상의 문제가 더 클 거라는 거죠. 감사를 받는 기간 동안에 미쳐지는 여파가 클 거라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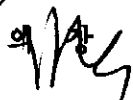
평의원 이재호 : 감사를 받는 기관들은 아무 결정을 못하고 다 스탱된다고요? 그렇지 않은 걸 겁니다. 대부분의 루틴하게 이루어지는 행위들은 다 이루어집니다. 물론 어떤 고도의 결정을 한다든지 하는데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죠.

평의원 이해진 : 힘이 다 빠지겠지요.

평의원 이재호 : 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실제로 거기에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죠. 그건 마치 평의원회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준비하고, 평의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대답을 해야 하고 그런 엑스트라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냐고 생각하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어떤 것이든 예상되어 있거나 해야 되는 것이 아닌 추가적인 절차가 있다면 당연히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데 그게 그렇게 그야말로 학교에 데미지가 심각하게 미칠 만한 것이냐 하는 것이죠. 데미지를 준다 하는 것과 데미지를 심각하게 크게 준다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평의원 이해진 : 심각하게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교수

< 간서명 란 >



님께서 외부 감독관청에 감사의뢰를 하자고 하면 어떤 감사기관인가 하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그 중에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감사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결정하자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런 내용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정리해서 다음번에 다시 한 번 의견을 달라는 말씀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실제로 이해진 평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기관이 감사를 착수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감사 착안 사항을 보낸다고 할 때 그 중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지 그것은 사실은 알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평의원 이해진 : 그래서, 그것을 가장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평의원 이재호 : 지금 사실은 선택지가 많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교과부, 감사원, 총리실 등등 일텐데, 그 중에서 대학에 있어서 감독관청이라고 할 수 있는 교과부에 감사 요청하는 것이 순서상 적절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의원 이해진 : 총리실에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장 박영무 : 법과대학 교수님 두 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교과부 자체까지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총리실은 감사+사정기관입니다. 일단 1차 감독기관이 교과부니까 교과부에 의뢰를 하고, 감사 과정에서 교과부의 잘못이 발견되면 감사원에 다시 또 의뢰할 수도 있겠지요. 현재로서는 1차 감독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라는 것이 학내 의견입니다.

평의원 이해진 : 감사의뢰기관 결정한다는 것은 여러 대안을 놓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부라는 것을 놓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의장 박영무 : 참고로 세 기관 모두에 의뢰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학교 감독기관인 교과부에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는 겁니다.

평의원 김용호 : 의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 1차적으로 교과부, 2차적으로는 감사원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평의원들이 이 기관을 하자 저 기관을 하자 논의가 될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1차를 교과부로 보시고 2차를 감사원으로 보시고 계시니까요.

의장 박영무 : 감독기관이 교과부니까 1차 교과부에 의뢰를 하고, 감사 과정에서 교과부의 잘못이 발견되면 감사원에 다시 또 의뢰할 수도 있겠지요. 현재로서는 1차 감독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라는 것이 학내 의견입니다.

< 간서명 란 >



평의원 이해진 : 교수님, 교과부에 감사의뢰는 꼭 평의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의장 박영무 : 평의회가 하는 것이 가장 책임있는 행동이지요. 감사 요청은 개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 개인보다는 평의원회에서 하는 것이 가장 공신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의원회에서 펀드 및 부정회계에 대한 보고서를 받고 채택을 했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평의회가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평의원 이해진 : 감사 의뢰하는 것은 평의원 중에서도 이재호 평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이 상당히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감사 의뢰 하는 것은 평의원 이름으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장 박영무 : 평의원 개인이 아니라 평의원회가 의뢰하는 것입니다.

평의원 이해진 : 교과부 감사를 의뢰할지 안할지에 대해서 저는 동의가 안되거든요. 저는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감사의뢰를 한다면 저는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만 참여하여 의뢰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대법원도 소수의견을 다는데, 말하자면 이해진 평의원께서 만약 동문회 의견은 이 사안에 있어서 의견이 그러하시다고 하면 회의록에 남게 됩니다. 평의원회 라는 게 회의체라면 회의체는 거기서 결정을 하면 거기에 소속된 평의원들은 그 결정에 구속을 받겠죠, 다만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하면 그 부분을 기록으로 남기자 라고 할 수는 있겠죠.

평의원 이해진 :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는 감사의뢰를 하기 전에 평의원 사퇴를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강하게 반대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미치는 파장이 크지 않은가 싶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아 이게 그런 정도로 심각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지요.

평의원 임재수 : 지금 법인이나 학교에 평의원회의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구 시에도 웰빙센터를 지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수입을 낼 것인가를 요구해야지 웰빙센터를 짓는데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공사비계산은 어떻게 결정했는냐는 해당 부서 담당들이 도덕적이지 못함을 저변에 깔고 요청하는 것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으므로 평의원에서도 신중해야 되고 반드시 공문을 보낼 때는 평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봐야 되고, 답변을 듣다보면 당연히 운영계획, 계약을 어떻게 어디서 하기로 했고, 평당 단가는 얼마고, 자연스럽게 원하는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문 내용이 누가 보더라도 계약하면서 비리를 저지른 것 같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아 저부터라도 제출하기 어렵다는 답이 올 것 같습니다. 이해진 평의원께서도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간서명 란 >

의장  
박영무



평의원 이재호 : 죄송한데, 지금 펀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 그 부분은 별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평의원 임재수 : 펀드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호 평의원님 다 아시는 펀드문제 내용을 계속해서 장시간동안 얘기하고 있잖습니까, 이전에 펀드문제 감사결과를 들어보고 재발 또는 개선이 되었는가를 평의원에서 논의 하는 게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제가 100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평의원 임재수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후로 개선운영(안)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잖습니까.

평의원 이재호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결산서에 조차도 분식회계 문제가 남아있고, 개선이 다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평의원 임재수 : 제가 생각한 것은 펀드 문제는 내외부에 다 오픈되어 있고 타 학교도 관행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나 직원들, 동문 등 외부인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조그마한 문제만 있어도 관공서, 언론사 등에서 말도 안 되게 확대되어 실제로 외부에서는 아주대학교가 큰 비리나 저지르는 집단으로 생각할 수 있고 병원도 진료뿐 만 아니라 환자가 지불하는 진료비까지 신뢰하지 못해 병원이미지 손상과 환자감소로 병원운영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심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자체감사위원들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 확보 하고 자체감사로 더 세밀하게 추가 개선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외부로 갖고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외부로 안 갖고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안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그런 안을 선호하겠지요. 지금 결국 할 만큼 하고 있는데 지금 제안하시는 것은 총장직무대행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건데, 상당히 이런 의견들은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상당부분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 입장이 바뀔 이유가 없거든요. 반대급부가 있든지 아니면 압박을 가하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평의원회가 각각의 소속된 단체에서 명백하게 의사표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가 그걸 받아들인다면 좋지요.

평의원 임재수 : 충분히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근데 그걸 얻어내지 못한 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평의원 임재수 : 학내 자체감사를 한다면, 이재호 교수님께서 책임 관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경직된 것 같아서 좀 분위기를 풀려고 말씀드

렸습니다.

평의원 김용호 : 이재호 평의원님께서 내신 안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부기관이 정해졌다고 학교 측에 압박을 가하면서 내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길을 열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반대입니다. 제가 이 논의를 재논의하자는 것은 신중하게 하자는 논의기 때문에 저는 이재호 평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저는 교과부는 앞서 밝혔듯이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용호 평의원 이석)

평의원 이재호 : 학교가 우리가 제안한 안 혹은 그에 상당한 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이해진 : 아까 교수님 말씀 중에 감사요원을 선임하고 평의원회에서 지명한 사람을 감사요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그 얘기는 뭐죠?

평의원 이재호 : 학교 측의 제안을 보면 감사위원을 총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중에 1명을 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는 거였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자체감사를 하겠다는 건가요? 거기에 감사위원을 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것, 총장이 추천하는 것 동수로 둔다는 건가요?

평의원 이재호 : 그게 우리의 제안입니다.

평의원 이해진 : 그것도 싫대요?

평의원 이재호 : 네, 우리 제안은 3대3으로 하고 위원장은 그 중에서 호선을 하고 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제3의 전문가한테 의뢰를 한다는 것입니다.

평의원 이해진 : 동수로 한다는 게 막힌 건가요, 제3의 기관에 회계를 맡긴다는 게 막힌 건가요?

(김용호 평의원 복귀)

평의원 이재호 : 회계감사도 막히고, 동수도 막힌 것이, 결국 기본 성질을 평의원회가 제안하는 특별감사 공동감사로 제안한 거고 학교는 기본 감사로 주장하는 겁니다.

평의원 이해진 : 의장님, 제가 현임 동문회장과 같이 총장대행을 만나보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평의원 몇 분과 같이 총장님을 만나보고, 학생회에서도 만나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조치,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달라는 취지로 학교 측에 평의원회, 교수님들, 학생, 동문회가 개별적으로 면담을 총장직무대행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평의원 임재수 : 저는 찬성합니다.

평의원 박철균 : 각자의 역할과 비중이 있으니까 비중을 충분히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간서명 란 >



평의원 김용호 : 동의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다음 번 회의를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모이는 것이 어떨까요.

의장 박영무 : 지금 나온 얘기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해진 평의원과 총동문회장이 총장직무대행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하시는 건가요?

평의원 이해진 : 그런 내용이 협의가 된다면, 학생회측에서 말씀드릴 내용과 동문회측에서도 말씀드릴 내용, 평의원회 의장님께서 말씀드릴 내용,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히 정리를 하시죠.

평의원 이재호 : 저희의 안은 있는데요.

평의원 이해진 : 저희의 안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평의원 이재호 : 이미 학교측에 제안했던 평의원회 안이 있습니다.

평의원 김용호 : 내부감사 안이 만들어졌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내부감사 안 그것을 저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가능한 한 그 내용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동문회측과 학생측과 평의원회 의장의 자격으로 총장대행을 다시 한 번 설득할 수 있을 겁니다.

의장 박영무 : 감사기관을 정하고 시한을 정하여 설득을 하고 안 되면 외부감사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감사기관을 정한 바가 없이 그냥 노력을 하겠다 그런 건가요. 이재호 평의원 제안은 오늘 감사기관을 정하고 시간을 줘서 더 노력을 해서 언제까지 답을 얻는 것으로 하자, 만약 그때까지 안되면 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되는 거죠.

평의원 박철균 : 제안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뭔가 이게 아닌데 싶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이 결론을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만나서 설득을 하고 저도 어제부터 상당히 설득하려고 애를 써왔는데 출장 중이고 통화가 안 되고 해서 설득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나름대로 통화를 하고 했지만 시간이 한 번 만났는데 어디까지 절충이 됐더라 이런 것이 공유가 된다면 그 다음 분들이 설득을 하는데 좀 낮게 정보를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 결론만 전달이 되어 버리니까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런 부분의 취약성을 느꼈습니다.

의장 박영무 : 감사 기관을 정리하고 설득하는 것을 노력해보고 안되면 감사 의뢰를 한다 이렇게 정하는 건지, 그거 없이 노력을 해보겠다 그것은 굉장히 막연한 이야기입니다.

평의원 임재수 : 감사기관을 정한다는 것은 내부 감사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 간서명 란 >

박영무

의장 박영무 : 아니죠, 지금 감사기관은 외부 감독관청입니다.

평의원 임재수 : 의장님. 평의원에서 제출한 내부감사(안)까지 포함 시키고 그런 노력을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의장 박영무 : 지금까지 그런 노력을 했는데 안됐잖아요. 그런데 또 그런 노력을 하느냐, 개별적인 노력을 하는 것은 좋은데 위험한 얘기입니다. 더 좋은 의견은 여러분들이 다 수렴해서 공식적으로 이재호 평의원이 가져가는 것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해진 평의원이 가서 하고, 또 다른 분이 가서 얘기하고.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의원회 의견으로 모아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평의원 이해진 : 의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외부 감독관청에 감사의뢰를 가능하면 막으려고 노력을 하자는 거지, 우리가 의견을 전달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따진다면 당연히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까지 가지 말고 해결하자 그런 노력을 각자 다 해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감독관청 감사까지 가지 않게 노력하려고 장시간의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결정해 놓고 하자, 여러분들 지금 이미 교과부로 결정해놓고 계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총리실 교과부 감사원 어디냐고 장단점 정리해주십시오 했더니 의장님께서 교과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의장 박영무 : 교과부가 합리적이겠다 라고 하는 거죠.

평의원 이해진 : 저희 평의원들은 교과부가 외부감사기관으로 감독관청으로 교과부가 제일 낫겠다. 이것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여기까지 안 되면 교과부로 가겠다 이지 아니에요.

평의원 이재호 : 예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구속력이 없지요. 우리가 평의원회라는 회의를 해나가는데 지금 결국 서로 두 가지 부분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의원 이해진 : 제가 지금 얼마만큼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나 하면 그게 만약에 평의원회 이름으로 해서 외부 감독관청에 감사의뢰가 들어간다고 하면 동문회장하고 협의를 해서 저는 평의원회를 사퇴할 생각입니다. 동문회는 그 내용에 끼지 않겠다는 겁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시라는 겁니다.

평의원 주동표 : 벌써 얘기가 지난 번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과 다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노력을 끝까지 해보자 그 취지는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마지막으로 총장대행과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중열 이석)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황의 변화가 없을 때 이렇게 하자는 것을 지금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해야만 평의원 의결사항으로도 맞는 일이지 지난 번 결정을 갖다가 반복

< 간서명 란 >



하면서 오늘 내리려고 했던 결정도 다음에 만나서 다시 이야기해보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이해진 : 그러면 저는 저로서는 이 논의에서 제외하겠습니다.

평의원 주동표 : 평의원회 권위를 위해서는 참 곤란한 일입니다.

평의원 이해진 : 저는 평의원회 권위보다도 이것을 가능한 한 잘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저는 평의원회 권위보다 그거를 택할 것 같아요.

평의원 주동표 : 평의원회 권위라는 게 무슨 거드름을 피우겠다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을 자꾸 번복하고 지금 그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의원 이해진 : 교수님, 번복한 것, 진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번복할 수 있죠.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주동표 : 물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데, 지난 번 회의에 참석한 것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내린 결정이고, 다시 논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누차 얘기를 했던 대로 상당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다른 분들 동의가 있어야 하겠지요.

평의원 이해진 : 제가 지난번에 일찍 나갔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얘기가 나오면 가능한 한 의견을 청취하려고 하였는데, 마침 몇몇 평의원께서 중요성에 대해서 재론까지 얘기가 나오고 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 의견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리고는 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이해진 평의원 말씀하시는 것에 의하면 결국은 노력을 해보고 안됐을 때조차도 평의원회 이름으로 감사 의뢰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평의원 이해진 : 어떻게 해서든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학교의 허물을 덮어버리고 새롭게 나가자는 의견에 대해서 총장대행을 설득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 주세요.

평의원 이재호 : 좋은 말씀인데요, 안됐을 때에 대한 대비를.

평의원 이해진 : 저 전전 동문회장입니다. 총장대행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전 동문회장으로서 현 동문회장과 협의해서 총장대행 혹은 재단과 협의할 의사가 있어요. 죄송하게도 아직까지는 이 부분 저는 다 지나 갔는 줄 알았어요. 펀드 투자에 대한 내용이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지나간 내용인 줄 알았어요. 작년에 기획팀에다가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꼭 30분씩 논의하자고 제안을 드렸는데 기획팀장 바뀌셨더니 내용 모른대요, 그리고 한 번도 예전 의장님께서 그거 좋은 방향이죠, 다 찬성하셨는데 한 번도 그거 가지고 올라온 적이 없어요. 저는 올 평의원회에서는 박영무 교수님, 동문회 행사 때 뵈었을 때도 제가 제일 먼저

< 간서명 란 >

의장

그 말씀 드렸습니다. 이번 평의회에서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지요 말씀드렸더니 의장님께서도 틀린 말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평의회가 자주 열리고 오랜 시간 열립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안전이 올라온 적이 없어요.

의장 박영무 : 이해진 평의원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자료 내라고 해도 자료를 안 냅니다. 그거야말로 정말 발전방향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인데, 참 이상합니다.

평의원 이해진 : 총장은 수비해야하는 조직이고 평의회는 공격해야하는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참 안타깝다...

의장 박영무 : 고통이 따르더라도 잘못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정직성이 이 기회에 확보되어야 합니다. 거짓과 부정이 버젓이 통하는 대학이 발전 할 수 있겠습니까? 학생과 교육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난 번 입시부정도 결국은 교과부 감사를 받았고 그 후 관련 행정이 투명해 졌지요. 결국은 학교와 학생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지요.

평의원 이해진 : 의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교직원이 아닌 평의원들도 다 학교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빼고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모교이기 때문에 와서 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는 다 느끼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방법상에서 저는 이 방법이 아주대학교를 더 위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박영무 교수님이나 이재호 교수님께서도 학교 안에 도둑놈이 있는데 이걸 두고 어떻게 발전방안 논할 수 있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조직 내 도둑놈이 있다고 하더라도 빨리 내 편을 만들었으면 생각하고, 의장님이나 이재호 평의원님께서도 빨리 잡아서 없애야지 나갈 것이냐 이 말씀이시고. 제 방법이 맞는지 우리 이재호 평의원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맞는지는 두고두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지금 도둑놈 하나 잡아냈다고 그 다음에 도둑놈 안 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대학교 40%가 도둑놈이다, 40% 다 몰아낼 생각은 아니시잖아요.

의장 박영무 : 도둑x'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제 이름을 말씀하시니까, 제대로 된 감사에 의해 전체 상황이 파악된 다음에, 그 사안의 중대성, 어떤 잘못이 있는지에 따라서 잡아야 할지 아닐지 결정을 하겠지요. 처음부터 누구를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조사의 결과에 의해서. 주안점은 제대로 된 조사를 하자는 겁니다.

평의원 이해진 : 정치쪽에 보면 일억 이억 받은 사람은 분명히 처벌 받아요,

< 간서명 란 >



그런데 백억 이백억 한 사람은 처벌 안 받아요, 이번 사안이 과연 얼마만큼 클리어하게 갈 것인가 라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임재수 평의원 복귀)

평의원 김용호 : 이게 감사가 제대로 된다고 치더라도 그 이후에 생길 다 마 무리되지 못할 일들 그 전에 외부에 알려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 이재호 평의원의 안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이해진 평의원께서 평의원직을 걸고라도 함께 하지 못하시 겠다고 하시니...

의장 박영무 : 떠나시겠다고 하니까 말려야지요.

평의원 이해진 :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무 : 김용호 평의원이나 이재호 평의원이 얘기한 의견이 합리적이 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시간을 가지고 이해진 평의원과 총학이 노력해 서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온다면 좋겠습니다. 이해진 평의원도 아시겠지만 이 논의는 이미 결정된 것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기다리고, 기회 를 주고, 할 만큼 했습니다.

평의원 임원형 : 저는 학교를 신뢰하고 싶습니다. 작년부터 학생회를 하면서 제가 대화했던 학교본부는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에 펀드투자 정말로 위험하지 않느냐, 학생들을 위해 위험하게 하는 거 아니 냐 물었을 때, 학교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보수적으로 투자했 다. 그리고 펀드 투자 가능한가요, 합법인가요? 물어봤더니 합법이라고 대답 해주셨습니다. 펀드투자 얼마나 했느냐 했을 때 230억 정도 했다고 했습니 다. 막상 찾아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가 이 만큼 했는데 이게 보수적이라면 다른 학교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라는 생각 이 들 정도로, 학교 말을 믿을 수가 없고, 학교가 주장하는 것보다 펀드투자 규모도 컸습니다. 학교가 처음에 이거 이거 조항으로 합법이야 라고 했던 것 도 바뀌었습니다. 학교가 합법이라고 주장했던 법조문도 제 상식에는 설득이 전혀 안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거는 총장직무대행이랑 학생처장님이랑 관련 기획팀장님이랑 경리팀장님, 총무처장님 오시고 학생측이 이쪽에 앉아서 얘 기 했습니다. 그때도 크게 다른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 말들이 저는 많 은 부분을 신뢰할 수 없는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저는 신뢰를 못 하겠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학생들은 펀드투자로 인해서 지금 당장도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걸 관심 갖고 있는 친구들은 학교 신뢰를 잃는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루

< 간서명 란 >



빨리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지 일주일, 이주일 미루어지고, 작년부터 있던 문제가 계속해서 미뤄지는 것은 틀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피해본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이미지 떨어지겠죠, 입시성적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구성원들 사기저하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감사해서 패널티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게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더 걱정이 되는 것이 구성원들 사기 저하 됐을 때, 아는 교직원 분께 얘기를 했는데, 그럴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다들 총장님과 같은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발전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어느 순간도 학교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학생들에게 말하는 교직원분들이나 처장님들이나 총장님 한 분도 못 봤습니다. 학생 대표 입장에서 이 사안을 일주일 이주일 미루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많은 단대장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대장님들도 외부 감사 하는 것 다 싫어하세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외부감사 필요성 동의하시고 저와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재호 평의원께서 한 번 더 결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해진 평의원하고 꼭 같이 하고 싶기 때문에 학교에 다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는 것도 찬성합니다. 물론 저는 같이 가지 않겠습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뺐으면 좋겠고, 대신 오늘 어디 감사까지 결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 또한 학생 대표로서 평의원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게 얼마나 학생들한테 큰 피해인지 알아야겠죠. 그리고 누가 잘못했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가장 기본적으로는 구성원들에게 사과를 받아야겠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재발방지를 해야겠고, 잘못된 사람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고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이해진 : 문제가 그렇게 크고 심각하면 학생회에서 바로 감사 의뢰를 하지 그랬습니까?

평의원 임원형 : 저는 전체 구성원들과 함께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학생회 단독 감사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저도 말씀드린 노력을 한 번 더 해보자, 그렇지 않다면 학생도 대표니까 감사 의뢰를 해도 되고, 교수님들이 하셔도 되고, 저는 평의원회에서 전체 의견을 통일해가지고 간다 이거에 대해서 힘들다는 뜻입니다.

의장 박영무 : 마지막까지 안 되면 표결을 해야지요. 그러나 표결 전에 가능하면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평의원 김관균 : 저는 지난 번 회의 때도 끝까지 있었고, 지금 계속 말씀해

< 간서명 란 >



주고 계시는데 지난 번 회의 때 외부 감사를 하는 것은 결정을 하고 어느 기관에 의뢰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장님께 위임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동안 학교 측에다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평의원들을 설득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펀드와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하고 있지만, 평의원 3년째 하고 있는데 학교 측에 무엇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구할 때 전혀 대화가 된다거나 받아들여진다거나 이런 걸 못 봤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다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논의하고 제안하고 하는 건데 여기서 얘기한 내용들이 학교 측에 전달하면 학교 측에서 수정하고 수정하지 못한다면 그런 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회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내용은 전달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학교가 받아들이고 혹시 못 받아주면 학교의 사정이 그래서 못 받아준다, 다시 한번만 재고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펀드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학교와 계속 이런 관계로 간다고 하면 사실 제가 오늘 안 나오려고 했습니다. 펀드에 대한 의사결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여기서 하는 의사결정에 대해서 학교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할건지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무 :**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였습니다. 평의원회가 외부 감독기관에 감사를 의뢰하기로 결정된 사실은 변함이 없고, 감사기관 선택만 남아있습니다. 가장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다음 주 중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감사기관을 선정하는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한 마음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면 회의 원칙에 따라서 투표하게 되겠지요.

**평의원 주동표 :** 감사기관 A냐 B냐 C냐를 투표로 결정하는 건가요?


**의장 박영무 :** 그렇지요. 늦어도 목요일까지는 결정해야겠지요?

**평의원 주동표 :** 다음 주로 넘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의장 박영무 :** 그 사이에 대학본부를 설득한 시간이 다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의원 주동표 :** 그러려고 하면 전제가 필요합니다. 구성원을 대표하는 각 평의원님들께서 총장을 접촉했을 때 한 목소리가 나와 됩니다. 다른 얘기가 들리기 시작할 것 같으면 아주 곤란합니다. 한 목소리라고 하면 평의원회에서 학교 측에 지난번에 요구를 한 감사위원 구성안에 대해서 요구를 계속 해야지 그거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반칙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 간서명 란 >



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평의원 이해진 : 안을 주시지요.

평의원 이재호 : 지난 번 회의 자료에 있습니다.

의장 박영무 :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의견이 수렴되기를 바라며 그렇지 않으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너무 시간을 보내지 말아야겠지요.

평의원 이해진 : 노력해보자고 하면서 다음 주 수요일은 너무 빠듯한 것 같습니다. 2주 정도는 서로 시간을 맞춰보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평의원 이재호 : 제가 제안한 것은 결의할 것은 하고 학교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견을 전달하자는 건데, 그러시면 대행을 만날 때도 압박을 어떻게 하실 건지, 왜냐하면 어차피 외부 감사는 안 되겠다고 하시니까요.

평의원 이해진 : 전 외부라는 게 아까 말씀 드렸듯이 감사 위원들을 지정해서 감사위원과 감사의 범위와 기간과 그런 것을 협의해야겠지요. 특정목적에 따른 감사, 그 내용에 대한 안을 갖고서 이거에 대한 감사를 어느 기관 거쳐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총장대행을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외부 감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의원 이재호 : 지금 내부감사안을 총장대행이 못 받겠다고 그러는 거니까요, 그럼 내부감사를 받지 못 받겠다고 하면, 그렇게 안 되면 이렇게 될거다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 데 이해진 평의원께서 그럼 무슨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실 건가요.

의장 박영무 : 2주 후 수요일 어떠신가요? 임원형 평의원이 걱정하는 것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시간을 당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사람들을 만날 시간이 필요합니다.

평의원 김관균 : 노력할 시간을 준다고 할 때 우리가 노력할 시간과 상대방이 노력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쌍방이 노력할 시간이 있어야 좀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평의원 박철균 : 협의하다 보면 좀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아닌 더 좋은 방식이 제안이 되면 의장님과 바로 협의해서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의도했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범위라면 그런 부분이 신속하게 이왕 저희가 설득을 하기로 했다면 그냥 맡겨놓는 방식보다는 충분히 협상을 하고 피드백 권한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의원 임재수 : 방법론적으로는 바로 총장대행께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처장님들이 계시니까 정보를 미리 주고...

< 간서명 란 >



평의원 이재호 : 처장을 만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장 수준에서는 얘기가 꽤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결국 결심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이고, 만나려고 하신다면 총장직무대행을 직접 만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은 혼선이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각각 다른 주체가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는 각각 다른 안과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의장 박영무 : 개별적으로 만날 때는 평의원보다는 동문회장으로, 총학생회장으로 총장직무대행을 만나주십시오. 공통적인 평의원 안을 가지고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사실은 이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 게 아니라 여러 대상이 상대하다보면. 그래서 이런 방안은 어떻습니까, 기본 목표는 우리 안, 혹은 그 안에 필적할 정도의 안으로 학교가 제안 한다면 2주 후 회의에서 학교의 제안을 학교가 갖고 와서 여기서 제안하고 그것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여기서 다시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사실은 굉장히 학교에 기회를 많이 준 것입니다.

의장 박영무 : 평의원회 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회의록을 보면 평의원회도 평의원들이 얼마나 대립과 타협과 결론에 이르기까지 어려웠는지 알 테고, 지금 이재호 평의원이 얘기한 대로 우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안이 나올지 목적을 주세요, 그 목적에 따른 방법은 어떻게 해서든지 오픈시켜야지요.

의장 박영무 : 나머지 두 안건이 있습니다만 식사를 준비 안했고 시간이 늦어서 오늘 회의는 이걸로 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의원 주동표 : 다시 한 번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주시지요.

의장 박영무 : 오늘 감사기관을 정하려고 했는데 전체 의견이 수렴되지 않아서 일단 지난 평의원회 회의에서 결정한 것을 존중하며, 평의회가 제안한 감사 방안을 기본으로 해서 학교 측이 그것을 수용하도록 우리 평의원들이 각각 노력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회의는 언제가 좋을까요?

평의원 임재수 : 꼭 모여서 표결할 필요 없잖아요. 결과를 보고 메일로 의사 결정을 해도 되잖아요. 다 모일 것 같지는 않으니까 날짜를 잡아보시고 알려주세요.

평의원 이해진 : 의견들을 오늘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다음에 논의한다면 대학 측의 새로운 안에 대한 내용이고 만약 그게 전혀 없다 하면 제가 강하게 감독기관에 감사는 반대했지만 무슨 명분으로 이재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을 반박하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전체가 꼭 다 오시는 것보다도 가장 많은 분들

< 간서명 란 >

이 오시는 날짜를 선택하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평의원 주동표 : 2주 후 수요일 어떻습니까. 일이 잘 진행이 된다고 하면 박수를 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가지고 외부 감사를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 정해진 거고 어디다가 감사 의뢰할지를 결정하면 다시 모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평의원 이해진 : 결정한 거 아닙니까.

평의원 주동표 : 어느 기관에 의뢰하느냐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위임을 해서 주변에 도움을 구하시고, 얘기 하시면 저희가 추인을 할 수 는 있겠죠.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도저히 잘못됐다고 하면 반대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추인하는 형식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오늘 회의의 목적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음 날짜를 잡아서 또 올 필요는 없겠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다음번에 모이는 것이 이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평의원회 안을 가지고 각각 노력을 하시는데 대학에서 나름의 안을 준비해서 제안한 다거나하면 그 안을 받아들일지 말지 살펴봐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모여야겠지요.

평의원 주동표 :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의장님께서 날짜를 잡아서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평의원 이재호 : 날짜를 잡아놓고 하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의장 박영무 : 그럼 새로운 안이 되는 건가요? 감독기관을 의장한테 위임하고 새로운 안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충분히 주고, 새로운 안이 없으면 그냥 외부 감사로 가는 것이고, 새로운 안이 나오면 그때 다시 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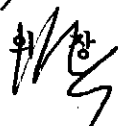
평의원 이해진 : 논의할 가치가 있으면 논의한다 가 되겠지요.

평의원 박철균 : 바로 집행하시는 것보다 이메일로 경과를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협의가 안됐고 해서 간다 이러면 저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평의원 주동표 :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지난 번 회의를 2주일 동안 해서 변화가 없으면 오늘 액션을 취하자고 한 건데 또 밀려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다음번에는 다시 한 번 연기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큰 변화가 있기 전에는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지난번하고 지금하고 다른 것은 각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별도의 노력을 하는 것이고, 이게 평의원회 뜻이다 하고 보내는 것보다 훨씬

< 간서명 란 >



나은 답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이해진 : 기대감을 갖고...

평의원 주동표 : 이해진 평의원께서도 사퇴한다는 그런 말씀은 거두시고.

평의원 이해진 : 주동표 평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준비시간을 갖고.

의장 박영무 : 구체적으로 날을 정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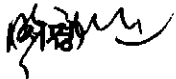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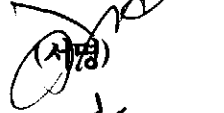

평의원 이재호 : 김관균 평의원께 죄송한데, 다음 다음주 수요일로 하는 게 어떨까요. 왜냐하면 안 자체는 이미 전달되었고 이제는 그야말로 결심의 문제입니다.

평의원 김관균 : 큰 방향이 정해져있고 제가 있는 다고 해서 그럴 건 없는 거 같습니다. 다다음주 의사결정이 안되면 그 다음에는 어렵죠.

평의원 주동표 :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의장 박영무 : 그럼 16일에 4시로 하겠습니다. 각 평의원들이 이 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폐회하겠습니다.

2010년 7월 2일

의 장	박 영 무	(서명) 
부의장	주 동 표	(서명) 
평의원	조 중 열	(서명)
평의원	이 재 호	(서명) 
평의원	오 동 석	(서명)
평의원	박 철 균	(서명) 
평의원	임 재 수	(서명) 
평의원	김 용 호	(서명) 
평의원	임 원 형	(서명) 
평의원	이 해 진	(서명) 
평의원	김 관 균	(서명) 
평의원	박 윤 규	(서명)
평의원	박 상 호	(서명)
기 록	진 성 호	(서명)

< 간서명 란 >

